

한국의 대중음악

각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을 감상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대중음악은 대중 매체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음악이다. 한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반영해 산업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 취향을 가진 계층의 음악 소비와 관련하여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감상해 보자.



이미자

아니 벌써(1977년)

1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사이키델릭 록과 펑크를 조합한 노래



동백 아가씨(1964년)

영화 「동백 아가씨」의 주제곡으로 여인의 깊은 한과 애상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노래



산울림

못 찾겠다 피꼬리(1982년)

4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주 장르였던 트로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한 노래



조용필

난 알아요(1992년)

1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가요에 랩과 힙합 등을 혼합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전환점이 된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

1920년대

한국 대중음악 시작
사의 찬미(윤심덕)

1930~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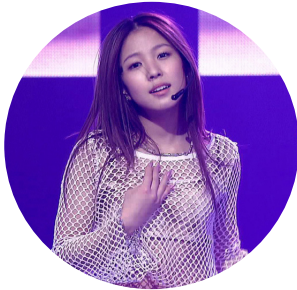
트로트 등장, 미국 대중음악 유입
이별의 부산 정거장(남인수)

1960년대

팝 음악 유행, 트로트의 전성기
고향역(나훈아)

1970년대

록 음악과 포크 송 유행
미인(신중현과 엽전들)



보아



No.1(2002년)

당시 17살 나이로
최연소 가요 대상을 받은 노래

강남 스타일(2012년)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최초의 노래



싸이



방탄소년단(BTS)



Dynamite(2020년)

K-POP 최초로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를
달성한 노래

현재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가수과 노래 소개



내가 소개할
노래는?

1980년대

발라드와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가 발달
사랑하기 때문에(유재하)

1990년대

힙합과 랩 음악 도입,
아이돌 가수 급증
캔디(H.O.T.)

2000년대

대형 기획사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류의 확산
태양을 피하는 방법(비)

2010년대~현재

케이팝(K-POP)과
뉴트로(new-tro) 유형
Life Goes On(BTS)